

『율리시스』에 드러난 셰익스피어: 찬탈자와 약화된 남성성을 중심으로

이 영 규 · 최 종 갑 *

I. 들어가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의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스킬라와 카립디스」(“Scylla and Charybdis”)에서 존 이글링턴(John Eglinton)은 “우리의 젊은 아일랜드 시인들은 . . . 제가 감탄해 마지않는, 색슨 사람인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비견할 만한 인물을 창조해야만 합니다”(U 9.43-44)라고 한다. 존 이글링턴은 매기(William Kirkpatrick Magee)의 필명으로, 당시 프로테스탄트만이 입학할 수 있었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교육받았다. 켈트 문예부흥 운동을 이끌던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존 이글링턴을 “우리의 유일한 아일랜드 비평가”(Our one Irish critic)로서 평한 바 있다(Gifford 194). 이것은 존 이글링턴이 앵글로 아이리시이자 당시 유력한 비평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

* 이영규(제1저자), 최종갑(교신저자)

미한다. 존 이글링턴의 논평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의 말은 당시 문예부흥 운동을 이끌던 이들과 아일랜드 문단이 가지고 있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존 이글링턴의 평가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햄릿』(*Hamlet*)의 주인공인 햄릿(Hamlet)을 아일랜드의 젊은 작가들에게 모방과 극복의 대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존 이글링턴이 셰익스피어를 일컬으며 굳이 언급한 “색슨”(saxon)이라는 단어는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사람과 구별하여 잉글랜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아일랜드에 비해 중심부인 잉글랜드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위상이 영국의 식민지인 주변부 아일랜드의 문학계에서 극복이 아니라 비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위상은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도 잘 드러난다. 『율리시스』에서 조이스는 호메로스(Homeros), 단테(Dante Alighieri),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는 물론 초서(Geoffrey Chaucer), 스펜서(Edmund Spenser), 밀턴(John Milton) 등 영문학의 정전 작가들을 비롯하여 같은 아일랜드 작가인 스텐(Laurence Sterne), 스위프트(Jonathan Swift), 예이츠, 와일드(Oscar Wilde)의 작품을 인용하고 패러디함으로써 두터운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구축한다. 이 많은 작가들 중에서 셰익스피어는 그 어떤 작가보다도 독보적일 만큼 많이 인용된다. 인용되는 작품에서도 한두 작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대다수 작품에 걸쳐있다. 셰익스피어의 주요 비극으로 평가받는 『햄릿』, 『오셀로』(*Othello*), 『맥베스』(*Macbeth*)는 물론이고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과 같은 다른 비극들을 포함하여 『헨리 5세』(*Henry V*)와 같은 사극, 『한여름 밤의 꿈』(*Midsummer Night's Dream*)과 같은 희극, 『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s Well That Ends Well*)와 같은 문제극, 『태풍』(*The Tempest*)과 같은 로맨스,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와 같은 장시와 소네트(sonnet)까지 셰익스피어의 거의 모든 작품이 인용되거나 패러디되고 있다. 셰익스피어

의 작품은 『율리시스』의 18개의 에피소드에서 「칼립소」(“Calypso”), 「페넬로페」(“Penelope”)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의 에피소드에서 고루 나타난다. 이는 조이스가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율리시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을 띠고 있는데 이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바흐친(M. M. Bakhtin)의 대화주의를 언급하면서 “모든 텍스트는 인용문들의 모자이크로 구성되며 다른 텍스트의 병합과 변형이다.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은 상호주관성으로 대체하며 시적 언어는 적어도 이중으로 읽힌다”(Kristeva 66)라고 설명한다. 이는 텍스트가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자기 완결적인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글들의 조각들과 흔적들이 천을 짜듯이 직조되어 복수의 가치들이 존재하는 열린 체계의 특성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조이스가 셰익스피어를 인용할 때는 서구 세계의 위대한 정전작가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패러디함으로써 그 권위를 해체시키려는 목적이다.

조이스의 상호텍스트성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율리시스』라는 제목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서양 문학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패러디하면서 제목을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율리시스』라고 한 까닭은 그리스가 로마에 패배한 역사를 통해, 비유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의 현실을 드러낸다. 그리스어였던 오딧세이는 그리스가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라틴어인 율리시스가 되어버린다. 말하자면 『율리시스』라는 제목 자체가 영국에 정복당한 아일랜드를 암시한다. 이는 즉 “그리스어인 오딧세이(Odyssey) 대신 라틴어인 율리시스(Ulysses)라는 제목을 조이스가 사용한 것은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과 같은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최석무 127)주는 것이다. 조이스가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 방식은 『율리시스』라는 제목에서 보여준 정치적 함의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피식민지인 아일랜드 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율리시스』에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이 텍스트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쓰던 시기(1914-1921)는 부활절 봉기로부터 시작된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시기(1916-1921)와 거의 맞물린다. 이런 까닭에 엔다 더피(Enda Duffy)는 『율리시스』를 “아일랜드 탈식민 독립의 책”(the Book of Irish postcolonial independence)(2)이라고 해석한다. 조이스는 아일랜드를 일컬어서 “(영국의) 600년간의 군사적 정복과 100년 이상의 합병에 의한 지배”(CW 199)에 의해 불행한 나라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조이스가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의 이런 역사적인 인식은 텍스트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율리시스』에서 아일랜드 토박이인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는 영국인 헤인즈(Haines)에게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 . . 영국인과 이탈리아인”(U 1.638)이라고 말하는데, 헤인즈는 스티븐의 언급 중에서 영국인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이는 헤인즈가 아일랜드를 침탈하고 있는 영국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헤인즈는 스티븐에게 이탈리아인이 무슨 의미인지를 두 번이나 물어보는데 스티븐은 “대영제국 . . . 신성로마 가톨릭 사도 교회”(U 1.643-4)라고 답변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헤인즈는 이탈리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보았지만, 스티븐은 굳이 앞의 영국인의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스티븐이 피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리시스』에서는 스티븐 디덜러스와 영국인 헤인즈의 대화 외에도 9장의 도서관 장면에서 스티븐 디덜러스와 아일랜드 문예 부흥론자들이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들을 언급하고 인용하는 형태로 각자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해를 때로는 암시적이고 때로는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키르케」(“Circe”) 에피소드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를 직접 등장시키며 그의 남성성을 조롱한다.

조이스와 셰익스피어 간의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어왔다. 이에 관한

초장기의 저서로 슈테(William Schutte)는 『조이스와 셰익스피어: 『율리시스』의 의미에 관한 연구』(*Joyce and Shakespeare: A Study in the Meaning of Ulysses*, 1957)에서 스티븐 디덜러스가 셰익스피어의 후계자로서 자신을 이미지화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데이빗 위어(David Weir)는 『설명된 『율리시스』: 호머, 단테, 셰익스피어가 조이스의 모더니스트적 비전을 구성한 방법』(*Ulysses Explained: How Homer, Dante, and Shakespeare Inform Joyce's Modernist Vision*, 2015)에서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호머의 서사적 방법과 단테의 디자인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플롯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셰익스피어의 플롯은 주로 『햄릿』을 위주로 한 부자 관계에 중심에 둔 해석이다. 로라 펠라스키어(Laura Pelaschiar)가 편집한 『조이스 / 셰익스피어』(*Joyce/Shakespeare*, 2015)는 논문 모음집으로 『피네건의 경야』도 포함하지만 대체로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셰익스피어와 그의 희곡을 분석하고 있다. 아담 퍼츠(Adam Putz)는 『셰익스피어의 경야에서 켈트 부흥: 아일랜드에서 전유와 문화정치, 1867-1922』(*The Celtic Revival in Shakespeare's Wake: Appropriation and Cultural Politics in Ireland, 1867-1922*, 2013)에서 특히 『율리시스』의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통해 문학에 관한 연구가 변혁적인 정치 및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셰익스피어가 당시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에서 어떻게 전유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국내에서는 조이스와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탈식민 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논의가 되어왔다. 최석무는 “Joyce’s Use of Shakespeare in *Ulysses*: A Postcolonial Perspective”에서 아홉 번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스티븐 디덜러스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해석은 그를 영국 제국주의자로서 위치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민태운 역시 「스킬라와 카립디스」장에서 셰익스피어의 제국에 대한 아일랜드 켈리반의 반란」에서 그간 셰익스피어의 『태풍』의 등장인물인 켈리반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었음을 지적하며 켈리반을 중심으로 탈식민 주체로서 스티븐을 조명한다. 남기현은 “‘Khaki Hamlets’ and ‘The Absent Minded Beggar’: The Boer War

in Joyce's *Ulysses*”에서 『율리시스』가 쓰여진 시기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전쟁의 분위기를 『율리시스』 내의 시간적 배경인 1904년에 언급되던 보어 전쟁에 기대어 기술한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전쟁의 양상을 띠는 보어 전쟁에 셰익스피어 작품의 대표적인 인물인 햄릿을 배치함으로써 셰익스피어를 제국의 작가로서 위치시키는 조이스를 조명한다.

조이스는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셰익스피어의 주요 작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작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셰익스피어의 지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이스는 단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만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를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가로서 구성하며, 이로 인해 제국의 정전작가로서 셰익스피어의 권위가 약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이스는 철저하게 식민지 아일랜드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국의 시인으로서 셰익스피어를 끌어들이고, 위대한 작가로서 평가받는 셰익스피어를 약화된 남성성을 지닌 작가로서 다시 구성한다. 남성성은 셰익스피어가 그의 역사극에서 구현한 잉글랜드 만들기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제국의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조이스는 셰익스피어의 남성성을 해체시키는 전략으로 잉글랜드 만들기의 허구를 폭로하며 제국주의적 속성을 약화시킨다.

『율리시스』의 18개 에피소드 중, 특히 「텔레마코스」(“Telemachus”)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맥베스』를 끌어들이면서 그 찬탈자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해서 아일랜드인인 스티븐과 영국인 헤인즈는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잉글랜드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아일랜드에서는 그들의 찬탈자이자 제국주의 영국의 작가로서 전유된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는 스티븐이 다른 인물들과의 토론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작업을 한다. 말하자면 위대한 셰익스피어를 주장하는 켈트 문예 부흥론자들과는 다르게, 스티븐은 약화된 남성성을 가진 작가로서

셰익스피어를 구성한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라는 담론에 스티븐은 오쟁이 진 남편으로서의 셰익스피어라는 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조이스는 『키르케』에서 셰익스피어를 직접 등장시키는데, 그를 부인의 외도로 고통받는 인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의 남성성을 흔들어서 놓음으로써 제국의 정전 작가인 셰익스피어와 그가 구축한 제국의 남성성을 함께 해체시킨다.

II. 「텔레마코스」: 셰익스피어 끌어들이기

『율리시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텔레마코스」에서 스티븐 디덜러스는 친구인 벅 멀리건, 헤인즈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담소를 나눈 뒤, 지난밤에 머물렀던 마텔로 탑(Matello Tower)을 떠난다. 아일랜드 토박이인 스티븐과 친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멀리건, 영국인인 헤인즈가 머물고 있는 마텔로 탑은 식민지 아일랜드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탑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1798년에 울프 톤(Theobald Wolfe Tone)이 영국의 적국인 프랑스와 연합하여 봉기를 일으키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 때문이었다. 1798년 봉기는 영국이 아일랜드가 프랑스와 연합하여 영국을 공격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로써 영국과 아일랜드의 합병을 추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해안에 정찰을 겸한 방어 요새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으며, 마텔로 탑은 이러한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다. 요컨대 마텔로 탑은 아일랜드인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영국의 필요 때문에 아일랜드에 구축된 영국의 요새다. 다시 말하면 마텔로 탑은 “자치권이 없는 아일랜드 상황에 대한 제유”(Cheng 151)이다.

이 마텔로 탑을 보면서 헤인즈는 “바다에서 불쑥 나온 절벽 꼭대기”(U 1.567-568)라는 『햄릿』의 대사를 떠올리며 이곳의 풍경은 “어딘가 엘시노어를 떠오르”(U 1.567)게 한다고 말한다. 헤인즈가 아일랜드의 마텔로 탑

을 보면서 『햄릿』을 떠올리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에 온 이유인, 아일랜드의 민속을 채집하러 온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낯선 아일랜드의 이국적 풍경을 자신이 친숙한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겹쳐둠으로써, 아일랜드의 낯섬을 순치시키며, 아울러 영국의 시각으로 아일랜드를 포섭하려는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박물관과 박물관화하는 상상력 둘 다 대단히 정치적이다”(Anderson 178)라고 했을 때, 헤인즈의 아일랜드 민속채집은 아일랜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를 열등한 상대로 박제화시켜 소유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헤인즈는 아일랜드의 문화를 영국의 시각으로 포섭하려 한다. 헤인즈의 담배 케이스에 박혀 있는 ‘초록색 보석’(U 1.615)은 ‘초록색’이 아일랜드의 상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국에 귀속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아일랜드를 정복하려는 헤인즈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헤인즈가 마텔로 탑을 보면서 『햄릿』의 무대인 엘시노어를 떠올리는 것은 아일랜드를 영국의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로 덧씌우는 행위이며, 낯선 아일랜드를 친숙한 잉글랜드의 문화 속으로 전유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헤인즈가 인용한 『햄릿』에서의 대사는 햄릿의 친구인 호레이쇼(Horatio)가 유령을 쫓아가려는 햄릿을 말리면서 하는 대사이다. 호레이쇼가 하는 이 대사는 엘시노어에 드리운 불안함을 드러낸다. 호레이쇼의 “바다로 불쑥 나온 절벽 꼭대기나 그런 위험한 곳으로 피어가서, 무슨 괴물로 변하여 사람의 이성을 박탈하여 미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Hamlet 1.4.70-74)라는 대사는 밖으로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땅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복수하려는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Fortinbras)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으로는 왕의 근위대원인 마셀러스(Marcellus)의 “덴마크 왕국엔 무언가 썩었어”(Hamlet 1.4.90)라는 한탄처럼 무언가 안팎으로 부패하고 혼란한 덴마크를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길한 유령이 출몰하는 엘시노어라는 공간은 그 안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한 곳임을 암시한다.

헤인즈의 『햄릿』에 대한 인용은 그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샌디코프 바닷가에 있는 마텔로 탑의 풍경을 보면서 외적인 유사함에서 착안하여 잉글랜드의 정전 작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을 인용함으로써 문화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 하였으나, 그가 의식하지 못한 차원에서는 피식민지인 아일랜드에 대한 두려움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샌디코프의 마텔로 탑은, 영국이 지배하는 식민지로서의 장소임과 동시에 정체를 모르는 유령이 배회하는 엘시노어와 같이 알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헤인즈의 모습에서 식민지 지배층과 피식민지인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만 작동하기보다는 식민주체의 불안함과 분열을 함께 수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헤인즈는 마텔로 탑을 엘시노어와 유사하게 봄으로써 “알아볼 만큼의 개량된 타자를 원하는 욕망(the colonial mimicry is the desire for a reformed, recognizable Other)”(Bhabha 86)을 투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자는 차이를 지닌 주체로서, 거의 똑같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Other, as a subject of a difference that is almost the same, but not quite)”(Bhabha 86) 존재여야 한다. 주체가 타자를 인식하기에 차이가 너무 커서 인식하기 어려워지면 지배자는 불안해한다. 반대의 경우, 타자가 차이가 너무 없어서 똑같아지면 그 또한 지배자는 불편해한다. 중요한 것은 거의 동일하지만 같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헤인즈가 바라보는 샌디코프 바닷가의 마텔로 탑이라는 풍경의 원본은 문학으로 구성된 『햄릿』의 엘시노어이며, 여기 마텔로 탑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모사이다. 바꿔 말하면 영국이 진짜이고 아일랜드는 그 원본에 대한 묘사다.

헤인즈가 스티븐에게 “난 네가 허락만 해주면 너의 어록을 만들 거야”(U 1.480)라고 이야기할 때 이 또한 헤인즈가 아일랜드의 민속을 채집하러 온 목적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토박이의 이야기를 모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일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일랜드를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구경의 대상으로 만들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아일랜드의 형상으로 박제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헤인즈가 스티븐

의 『햄릿』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주변부 지식인의 해석을 통해 중심부를 더욱 강력하게 하려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어록을 만들고 싶다는 헤인즈의 이야기에서 그의 담뱃갑 안의 초록색 보석처럼 아일랜드의 민속문화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간과한 스티븐은 “나를 보고 말을 하는 걸, 저들은 씻고 목욕하고 북북 문지르지. 양심의 가책. 양심. 하지만 여기에 얼룩이 있어”(U 1.481-2)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지 못한 스티븐 자신에게 향하는 죄책감과 동시에 헤인즈가 대표하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스티븐은 멀리건과 헤인즈가 몸을 씻는 장면을 상상하며 “여기에 얼룩이 있어”(U 1.482)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맥베스』의 5막 1장에서 맥베스 부인(Lady Macbeth)이 환각 속에서 자신의 손에 자신들이 암살한 던컨(Duncan)왕의 피가 묻어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대사이다. ‘얼룩’(spot)은 자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피의 얼룩을 뜻하면서 동시에 왕을 시해한 윤리적인 오점을 의미한다. 이 뒤의 맥베스 부인의 대사는 “저주받은 얼룩아, 없어져라, 제발 없어져”(Macbeth 5.1.28), “여기에 아직 피 냄새가 남았구나. 아라비아 향수를 다 뿌려도 이 작은 손 하나를 향기롭게 못 하리라”(Macbeth 5.1.40-41)로 이어진다. 아무리 씻어도 왕을 시해한 흔적인 피가 지워지지 않는 듯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미쳐가는 맥베스 부인의 대사를 빌어 헤인즈로 대표되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들이 아무리 씻는 행위로 지난 과거를 지우려 해도 아일랜드에서 행한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헤인즈가 “아일랜드 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영국인들의 느낌은 너희를 상당히 부당하게 취급했어”(U 1.647-8)라는 사과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비난받을 것은 역사야”(U 1.649)라는 이야기로 무효가 된다. 엄연히 부당한 일을 한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헤인즈는 그 책임을 역사에 떠넘기는 것이다. 헤인즈가 스티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조이스는 스티븐을 “야생의 아일랜드

랜드인”(U 1.731)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영국의 지배에 길들여지지 않는, 순치되지 않는 아일랜드를 뜻하는 것이며, 이런 스티븐의 입장에서 헤인즈는 믿지 못할 존재로서 “황소의 뿔, 말의 발굽, 색슨인의 미소”(U 1.732)로 의식된다.

헤인즈가 마텔로 탐이 엘시노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멀리건은 스티븐 쪽으로 몸을 돌리지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멀리건의 침묵은 헤인즈에게 돈을 얻지 못하는 이상은 스티븐에게 헤인즈가 궁금해하는 『햄릿』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다. 멀리건은 영국이 아일랜드를 통치할 때 필요로 하는 내국인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멀리건은 헤인즈가 원하는 것을 통해 돈을 얻어 내려 한다. 멀리건이 “그 옥스퍼드 녀석에게 1기니 우려내봐. 돈이 남아도는데 너를 신사로 여기지 않아”(U 1.154-6)라고 스티븐에게 이야기할 때 스티븐에 대한 헤인즈의 계급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그에 종속되어 이익을 챙기려는 멀리건의 위치 또한 보여준다.

그리고 그때 스티븐은 “그들의 화려한 복장 사이에 끼어 먼지투성이 싸구려 상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U 1.570-71)을 본다. 스티븐은 화려한 옷을 입은 헤인즈와 멀리건 사이에 상복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묘사는 햄릿이 자신의 벗이었던 로젠크란츠(Rosengranze)와 길든스텐(Guildenstern)과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텐은 왕비인 거트루드(Gertrude)가 “산 사람 중에 그대들 둘보다 그(햄릿)와 더 마음 맞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Hamlet 2.2.20-21)할 정도로 햄릿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햄릿 또한 극의 첫 만남에서 “내 훌륭한 친구들”(Hamlet 2.2.224)이라고 환대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텐은 햄릿과의 우정보다는 권력을 선택하면서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사이로 변한다. 햄릿의 입장에서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텐은 왕인 클로디어스(Claudius)의 충애를 받으면서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인 셈이다.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텐이 왕의 하수인인 것처럼 헤인즈와 멀리건은 영국의 하수인들이다. 햄릿은 숙부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스티븐

은 영국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유사점과 함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헤인즈가 마텔로 답을 보며 엘시노어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낯선 것을 낯익은 것으로 순치시킨다면 스티븐은 두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햄릿의 위치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낯익은 것을 낯설게 위치시킨다.

「텔레마코스」에서 조이스는 스티븐의 의식과 대화를 통해 『햄릿』, 『맥베스』를 인용하며 나라를 찬탈당한 아일랜드 토박이 스티븐 디털러스의 입장을 드러낸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을 인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의 모티브가 찬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영국의 “찬탈자”(U 1.744)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킨다.

III. 「스킬라와 카립디스」: 셰익스피어 구성하기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스티븐 디털러스는 국립 도서관에서 접신론자인 시인 A.E.(George William Russell), ‘퀘이커교도 관장’(The Quaker librarian)이라고 불리는 국립도서관장 토마스 리스터(Thomas William Lyster), 국립도서관 부관장 리처드 베스트(Richard Best)와 당시 국립도서관 부사서였던 존 이글링턴과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에피소드의 공간적 배경인 아일랜드 국립 도서관은 1877년에 영국 의회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1904년에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신교도들이었다. 스티븐에게 있어서 국립 도서관은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을 주도한 앵글로 아이리시들의 공간이었으며 그로 인해 일정 정도의 소외감을 느낀다. 스티븐은 러셀이 모으고 있는 아일랜드의 젊은 시인들에서 배제된다. 도서관장이 “러셀 씨가, 소문에 듣자 하니, 우리 젊은 시인들의 시를 정리하고 있다는군요. 우리 모두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U 9.289-90)라고 했을 때, 스티븐은 “무릎 너머 그의 물푸레나무 지팡이 손잡이에 걸린, 넓고 춤 없는 모자를 내려다”(U 9.292-93)본다. 아일랜드의 젊

은 시인들의 모임에서 스티븐은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무어(Moore)의 집에서 모임이 있지만 여기서도 스티븐은 배제된다. 말하자면 아일랜드 토박이인 스티븐은 앵글로 아이리시들이 주도하는 모임에서 배제되고 소외된다.

이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셰익스피어에 대해 전기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삶과 작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는 도서관에 참석한 다른 인물들이 작품 내적의 보편성을 근거로 전개하는 것과 차별을 이룬다. 존 이글링턴의 “우리의 젊은 아일랜드 시인들은 . . . 제가 감탄해 마지않는, 색슨 사람인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비견할 만한 인물을 창조해야만 합니다”(U 9.43-4)라는 이야기는 아일랜드 지식인 계층에서 셰익스피어는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햄릿』 역시 그러한 작품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존 이글링턴이 셰익스피어를 호명하면서 굳이 색슨(Saxon)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층위의 의식을 보여준다. 먼저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작가라는 것을 명백히 의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영국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식민지와 피식민지라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다. 그런 한편 셰익스피어는 아일랜드 작가들이 따라잡아야 할 문학의 모범으로 제시됨으로써 은연중에 영국은 아일랜드가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환치가 된다. 이는 “색슨 사람인 셰익스피어”에서 보여주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의 이면에 중심부인 영국의 인정을 욕망하는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의 아이러니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문학 내적으로 셰익스피어를 해석하려 한다. 이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탈역사적으로 읽어내려는 시도이며, 결과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정전성을 공고히 하는 읽기이다.

러셀이 “예술은 우리에게 관념을, 형태 없는 정신의 본질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 . . 햄릿의 말은 우리의 정신을 영원한 지혜, 플라톤의 관념의 세계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U 9.48-53)라고 하였을 때, 참된 예술은 진리

에 가까운 것을 모방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셀에게 그 진리에 가까운 작가가 바로 셰익스피어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를 진리에 가까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러셀의 독법은 물역사적인 읽기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플라톤을 옹호하는 러셀에게 스티븐은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 . . 저를 그의 공화국에서 추방하려 했었나요?”(U 9.82-3)라고 물으면서 모방 사이에 위계를 두는 문학적 전통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티븐에게 있어서 문학과 세계는 본질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이다. 스티븐이 「네스토르」(“Nestor”) 에피소드에서 “저게 신이에요. . . . 거리의 외침”(U 2.383-86)이라고 할 때, 스티븐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의 개념을 거리의 유동적인 소리로 바꾸어놓는다. “거리의 외침”은 순간적이며 현시적임으로, 본질적이며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동시성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스티븐의 예술관은 켈트적인 것을 찾아서 귀족적인 세계와 농민들을 이상화하려는 아일랜드 문예 부흥론자들의 의견과 다르다. 스티븐에게 있어 아일랜드 문학에 필요한 것은 본질적이고 영원하며 확고부동하게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구성이 아니라, 그것이 설사 비루하고 남루하더라도 변화하는 지금의 더블린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티븐의 태도는 아일랜드 문학의 주류인 앵글로 아이리시들과는 견해를 달리하며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스티븐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논의를 펼칠 때, 그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을 실험적으로 제시한다. 즉, 문학을 문학 내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여타의 인물들과 다르게 스티븐은 셰익스피어의 전기적 사실을 문학에 끌고 들어온다. 스티븐은 셰익스피어의 첫째 아들 햄넷(Hamnet)이 11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것과 부인인 앤 해서웨이(Ann Hathway)와의 원만하지 않은 결혼 등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햄릿』에 대한 이론을 펼쳐나간다. 스티븐은 “유령이란 무엇이죠? . . . 누가 햄릿 왕인가요?”(U 9.147-50)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한다. 스티븐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동일시한 것은 햄릿이 아니라

유령이며 햄릿은 그의 요절한 아들 햄넷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선왕이 죽은 후 바로 그의 동생과 결혼하는 거트루드는 셰익스피어의 부인인 앤 해서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러셀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리어 왕』의 시를 읽을 때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U 9.184-5)라고 반박한다. 존 이글링턴 또한 “당신은 300년 전통에 맞설 셈인가요?”(U 9.214)라고 스티븐의 의견에 반론을 표명한다. 또한 이글링턴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내 신념을 흔들려고 한다면, 당신은 가혹한 숙제에 부딪혔다고 충고하겠습니다”(U 9.370-71)라고 덧붙인다. 말하자면 스티븐의 『햄릿』 해석은 지난 300년간의 문학적인 합의에 맞지 않고, 문학 내적인 해석을 벗어난 궤변이라는 것이다.

스티븐은 『햄릿』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역사는 “기억의 딸들이 만든”(U 2.7) 것이며 “예술가는 그의 이미지를 엮었다 푸는 것”(U 9.377-8)이라고 주장한다. 역사나 예술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해석 또는 예술가의 창작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끝났을 때 존 이글링턴이 “당신은 망상가요요. . . 당신 자신의 견해를 당신은 믿어요?”(U 9.1064-56)라고 물었을 때, 바로 “아니요”(U 9.1057)라고 답변한다. 스티븐이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대답을 한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가 틀렸는데 일부로 억지를 부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절대적인 하나의 해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또 다른 견해들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아니요”로 받아드려야 한다. 말하자면 스티븐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며, 300년의 문학 전통에서 인정받고 있는 걸작인 『햄릿』에 대한 하나의 해석들을 실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햄릿』의 정전성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스티븐이 “카키색 햄릿은 총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U 9.133)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티븐은 “색슨인 셰익스피어”의 주인공 햄릿 또한 영국인으로 등치시켜 놓으며, 영국 제국주의가 일으킨 보어 전쟁에 대한 비판을 보

여준다. 이 이야기를 언급한 후 “5막의 유혈 낭자한 아수라장은 스윈번이 노래한 강제 수용소의 예고편이지요”(U 9.134-35)라든지 “얼빠진 거지”(U 9.125) 등의 이야기는 모두 보어 전쟁에서 보여준 영국 작가들의 제국주의 적 속성을 폭로한 것이다. 「얼빠진 거지」(The absentminded beggar)는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시로써 설리번(Sir Arthur Sullivan)이 곡을 붙였고 보어 전쟁을 수행하는 부대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사용되었다(Gifford 201). 또한 스윈번(Swinburne)이 노래한 “강제 수용소”(concentration camp)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어의 민간인들을 감금하기 위해 남아공에 만든 강제 수용소를 의미한다. 스티븐은 『햄릿』을 해석하면서 당시 제국주의 영국에 의해 저질러진 보어 전쟁을 겹쳐놓으며, 햄릿을 영국 제국주의자에, 5막에 벌어진 유혈극을 보어 전쟁의 참상과 병치시켜 놓는다. 이는 스티븐이 『햄릿』에 관하여 논의할 때, 다른 이들이 플라톤의 이데아에 천착하여 몰역사적인 독법으로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 그는 식민지 아일랜드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그 지점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읽기를 시도한다.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햄릿』을 1904년 아일랜드의 현실에서 읽었을 때, 이는 제국주의의 정전이자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스티븐은 지인들과 셰익스피어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술에 관한 견해 또한 함께 드러낸다. 진리에 가까운 셰익스피어라는 입장과 비교하여 스티븐은 예술작품의 해석은 열려있으며, 그 해석은 해석자가 처한 현실과 맞닿아있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낸다.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의 지식인인 스티븐이 해석한 셰익스피어는 러셀의 “존경하는 색슨인 셰익스피어”보다는 훨씬 정치적이며 역사적임과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IV. 「키르케」: 셰익스피어 해체하기

드라마의 형식을 띤 열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키르케」에서 셰익스피어는 마비된 얼굴로 등장하여 아주 짧은 대사를 하고 사라진다. 여기서 보이는 셰익스피어의 모습은 예술가라는 면에서는 스티븐 디덜러스를, 그리고 남성성이 약화된 모습에서는, 자신의 부인인 몰리(Molly Bloom)와 보일런(Blazes Boylan)의 밀회로 고통받는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과 겹쳐진다. 특히 이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약화된 셰익스피어의 남성성은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조이스가 구성한 셰익스피어의 남성성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조이스가 「키르케」에서 셰익스피어를 재현하면서 무엇보다 그의 남성성을 조롱하는 방식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역사극을 통해서 잉글랜드 만들기의 핵심 요소로써 남성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제국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제국의 정전을 구축한 셰익스피어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이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에 대하여 “그의 인물들은 모든 정신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열정과 원칙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다”(62)고 평한 이래로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들의 보편성은 셰익스피어 비평의 핵심이 되었다. 또한 연극비평가 얀 코트(Jan Kott)는 “셰익스피어는 한 번도 시대에 뒤진 적이 없다”(131) 라고 선언하며 어떤 특정한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셰익스피어의 보편성은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서구 근대성의 시작, 즉 제국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이며, 아울러 “잉글랜드의 민족국가와 제국 건설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이경원 88)한 작가이다. 다시 말하면, 셰익스피어의 보편성은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때의 역사적인 조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은 셰익스피어의 잉글랜드 만들기 작업과 관련이 되어있다. 이 역사극들에서 셰익스피어는 중세 잉글랜드를 무대로 봉건 영주의 권력 투쟁과 함께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을

다룬다. 예를 들어, 강력한 외부의 적과 대립을 통하여 하나의 잉글랜드라는 개념을 형성시킨 대표적인 작품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헨리 5세를 극화한 『헨리 5세』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에서 잉글랜드를 하나로 결속시키며, 압도적으로 강했던 프랑스를 정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로 남성성을 내세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에서 잉글랜드를 죽음을 불사하는 강인함과 용감무쌍함, 헌신으로 나타나는 남성성이 가득한 나라로, 프랑스에 대해서는 프랑스 여인들의 대사로 “여성들은 우리더러 잉글랜드의 댄스 학교의 교사나 돼 가지고, 저 높이 뛰는 라볼타 춤이나 템포 빠른 코란토 춤이나 가르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춤에서도 도주에서 긴요한 뒤꿈치밖에 없다고 말하고”(Henry V.3.5.32-35)로 이야기할 만큼 여성성이 가득한 나라로 재현한다. 영국의 남성성은 아쟁쿠르(Agincourt)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프랑스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이유인 것처럼 묘사된다. 말하자면 남성적인 영국이 여성적인 프랑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런 남성적 잉글랜드와 여성적 프랑스의 대립은 헨리가 프랑스 공주 캐서린(Katherine)과 결혼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는데, 이때 헨리는 캐서린에게 강제로 키스함으로써 “말하는 주체”에서 ‘침묵하는 타자’”(이경원 440)로 봉쇄해버린다. 셰익스피어의 사극이 잉글랜드 민족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가 『헨리 5세』에서 재현한 잉글랜드는 남성들의 피의 유대로 이루어진 강력한 남성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동력으로 오랜 경쟁자인 프랑스마저 굴복시킨다. 셰익스피어의 사극에서 남성성은 민족국가의 형성뿐 아니라 제국 만들기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이다. 「키르케」에서 흥등가의 여성인 케이트(Cunty Kate)가 영국의 수호성인인 ‘성 조지’(U 15.4638)를 부를 때, 이것은 『헨리 5세』에서 “신이여, 헨리와 잉글랜드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성 조지여”(Henry V.3.1.34)와 공명한다. 이는 프랑스와 전쟁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헨리 5세가 신에게 기원하는 장면이다. 조이스는 「키르케」에서 영국 병사인 카

(Private Carr)와 콤프튼(Private Compton)에게 곧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스티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헨리 5세』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연설한 가장 호전적인 장면의 클라이맥스를 인용함으로써 셰익스피어가 그려낸 호전적인 남성성을 드러내는 한편, 이 대사를 케이트(Cunty Kate)라는 여성에게 맡김으로써 그 호전성을 조롱한다.

셰익스피어가 그려내는 남성성이라는 것도 굳건하기보다는 금방이라도 균열될 수 있는 취약한 것이다. 이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헨리 5세』에서 전투 전날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병사처럼 위장하고 그들 사이에 끼어든 헨리는 자신의 병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이 헛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을 듣게 된다. 왕의 영광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왕국의 안위”(Henry V.2.2.176)나 “잉글랜드의 귀족들이여, 그대들의 혈통은 전쟁들로부터 단련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것”(Henry V.3.1.17-18)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Henry V.3.2.4)이다. 헨리가 “나는 왕과 함께라면 어디서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소. 그분의 전쟁목적은 정당하고 명분도 올바른 것이니까”(Henry V.4.1.127-8)라고 주장할 때, 병사 윌리엄스(Williams)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Henry V.4.1.129)라고 대답한다. 영국 만들기를 넘어 제국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강력한 형제애와 남성성은 하층민들에게는 알 바가 아니며 지배층인 앵글로 색슨 왕족의 그들만의 명분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는 남성성이야말로 영국이 열세를 극복하고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음을 『헨리 5세』에서 그려낸다. 이는 영국의 남성성은 잉글랜드 만들기뿐 아니라 제국 건설의 바탕임을 암시한다. 그런 한편, 헨리 5세와 하층 남성들의 대화를 통해 남성성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셰익스피어는 잉글랜드 만들기와 그를 바탕으로 제국 건설로 이어지는 남성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 상의 구성임을 드러낸다.

스티븐은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제국의 정전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중심적 위치를 흔들기 위해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남성성을 되받아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부인인 앤 해서웨이에게 정복당했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그녀가 그를 유혹했어요. 아름답고, 스물여섯의 나이로 . . . 그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애인을 곡물 밭에서 넘어뜨리는 낫짜 두꺼운 스트랫포드 처자인 거죠.”(U 9.257-60)라며 남성성을 상실한 셰익스피어로 묘사한다. 스티븐은 셰익스피어가 이런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의 작품 속에서 심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U 9.455-60) 부인에게는 낡은 침대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U 9.690-99)는 전기적 사실을 들면서 셰익스피어가 평생 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이런 한편으로 스티븐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부인인 앤 해서웨이가 그의 형제들과 밀통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드라마에서 그의 형제들은 악당들로 재현했다고 이야기한다. 스티븐의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재현은 「키르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셰익스피어

(위엄있는 복화술로) 커다랗게 웃는 것은 텅 빈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 나라. (블룸에게) 그대는 마치 그대의 모습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도다. 자세히 보라. (그는 불간 검은 수탉의 웃음소리로 끼룩끼룩 웃는다) 이아고고! 나의 늙은 친구가 어떻게 하여 테스트모난을 목조라 죽였던고. 이아고고고! (U 15.3825-29)

블룸은 이날 부인인 폴리 블룸이 보일런과 밀회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처지이다. 셰익스피어가 블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둘 다 오쟁이 진 남성의 처지인 것을 의미한다. 스티븐과 블룸이 함께 바라보는 거울에 등장한 셰익스피어는 “안경 신경통으로 굳어가지고 . . . 현관에 수사슴 뿔로 된 모자걸이의 그림자가 왕관처럼 씌어

져있다”(U 15.3821-4)로 묘사된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머언저 죽이인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두 번 결혼하아리오”(U 15.3853)라고 말하며 퇴장한다.

「키르케」에서 재현되는 셰익스피어는 제국의 정전 작가로서 위대함과 강인한 남성성을 발휘하는 인물이 아니라 부인의 불륜으로 상처받고 늙어가는 인물이다. 모든 인물들의 위계가 사라지고 사물들조차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인 「키르케」에서 조이스는 셰익스피어를 위대한 영국의 작가로서가 아닌 부인에게 버림받고 늙어가는 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셰익스피어와 그로 대표되는 영국의 남성성을 조롱하며 해체한다.

V. 나오면서

조이스가 『율리시스』에서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 방식은 단지 제국의 정전 작가인 셰익스피어에 대한 상찬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작가로서 셰익스피어의 중심적 권위를 해체시키는 전략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조이스가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율리시스』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부자 관계의 모티프는 『햄릿』에서도 볼 수 있는바, 그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정전성과 정전화는 또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이스는 잉글랜드의 대표 작가로서 구성된 셰익스피어라는 담론, 즉 제국에 의해 구성된 셰익스피어에 대해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다른 시각의 담론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첫 에피소드인 「텔레마코스」에서부터 찬탈의 모티브로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인 『햄릿』, 『맥베스』를 끌어들인다. 이 두 비극 모두 왕위찬탈과 관련된 이야기로써 영국에 주권을 찬탈당한 아일랜드의 현실은 왕위를 찬탈당한 햄릿과 겹치지며, 왕위를 찬탈한 맥베스의 죄의식은 스티븐으로 하여금 헤인즈와 그의 조력자인 멀리건과 겹치지게 한

다. 조이스는 『햄릿』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그 대사의 맥락에 담겨있는 식민지 지배층의 불안함 또한 내포시킨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는 『햄릿』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인용된다. 등장인물들은 셰익스피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형태로 논평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의식이나 대화 속에서 인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스티븐은 다른 인물들이 위대한 작가로서 셰익스피어를 평가하는 것에 반하여 역사적,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셰익스피어를 오쟁이 진 남편으로서 다시 구성한다. 이 구성된 셰익스피어가 의미하는 것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셰익스피어의 해석에 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의 정전성을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된 「키르케」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직접 등장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재현되는 셰익스피어는 오쟁이 진 남편으로 등장한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속에서 구축한 남성성은 영국 만들기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제국주의적 성격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성성이 약화된 셰익스피어의 재현은 작가 셰익스피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주의적 속성인 남성성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셰익스피어를 그 어떤 작가보다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조이스에게 끼친 영향을 드러내면서도, 아일랜드 작가로서 조이스는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영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나아가서 셰익스피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남성성을 해체한다.

(연세대 · 춘천교육대)

인용문헌

- 남기현. “‘Khaki Hamlets’ and ‘The Absent Minded Beggar’: The Boer War in Joyce’s *Ulysses*.” 『제임스 조이스 저널』, 27권 1호, 2021, pp. 149-75.
- 민태운. 「『스킬라와 카립디스』장에서 셰익스피어의 제국에 대한 아일랜드 캐리반의 반란」. 『근대영미소설』, 제22집 제3호, 2015, pp. 93-114.
- 이경원. 『제국의 정전 셰익스피어 — ‘이방인’이 본 ‘민족시인’의 근대성과 식민성』. 한길사, 2021.
- 최석무. 「조이스의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율리시스』의 오딧세이 신화 해체」. 『영어영문학』, 47권 1호, 2001, pp. 125-38.
- . “Joyce’s Use of Shakespeare in *Ulysses*: A Postcolonial Perspective.” 『비평과 이론』, 3권 1호, 1998, pp. 113-26.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U of Cambridge P, 1995.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U of Minnesota P, 1994.
- Gifford, Don. &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U of California P, 1988.
- Johnson, Samuel. “Preface to Shakespeare.” *The Yale Edition of the Works of Samule Johnson*, vol. 7, edited by Arthur Sherbo, Yale UP, 1968, pp. 59-144.
- Joyce, James.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 1986.
- .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it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Vikings, 1964.
- Kott, Jan.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W. W. Norton & Company, 1974.

- Krie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edited by Leon S. Roudiez, Translated by Thomas Gora, Alice Jardine and Leon S. Roudiez, Columbia UP, 1980.
- Pelaschiar, Laura. *Joyce / Shakespeare*. Syracuse UP, 2015.
- Putz, Adam. *The Celtic Revival in Shakespeare's Wake: Appropriation and Cultural Politics in Ireland, 1867-1922*. Palgrave Macmillan, 2013.
- Schutte, William M. *Joyce and Shakespeare: A Study in the Meaning of Ulysses*. Yale UP, 1957.
- Shakespeare, William. *Macbeth*, edited by Bernard Lott, Longman, 1984.
- . *Hamlet*, edited by Harold Jenkins, Routledge, 1982.
- . *Henry V*, edited by Gary Taylor, Oxford UP, 1982.
- Weir, David. *Ulysses Explained: How Homer, Dante, and Shakespeare Inform Joyce's Modernist Vision*. Palgrave Macmillan, 2015.

Abstract

Shakespeare in Joyce's *Ulysses*:
Focusing on a Usurper and Diminished Masculinity

Younggyu Lee · Jong-gab Choi

James Joyce, as a writer in the British colony of Ireland, critically interprets Shakespeare and his work in *Ulysses*. He refers to Shakespeare, either commenting directly on Shakespeare in text or citing different characters' dialogues in Shakespeare's work. Joyce presents critical consciousness of Shakespeare and British imperialism in the context of quoting Shakespeare's work. First of all, in the "Telemachus" episode, Joyce deals with Shakespeare's "Hamlet" and "Macbeth" as the motif of usurpation. The situation in Ireland, which is a British colony, can be linked to Hamlet deprived of the throne. Lady Macbeth's guilt is also connected to the guilt of the British. In addition, in the "Scylla and Charybdis" episode, Stephen Daedalus interprets Shakespeare as an element of personal history, shaking Shakespeare's canonicity, while other characters view Shakespeare as a great writer. Finally, in the "Circe" episode, Joyce recreates Shakespeare as an aging man who has been abandoned by his wife, not as a great British writer. Masculinity is closely related to imperialism, and Joyce criticizes British imperialism in a way that makes a mockery of Shakespeare's masculinity.

■ **Key words** : James Joyce, *Ulysses*, Shakespeare, masculinity, intertextuality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셰익스피어, 남성성, 상호텍스트성)

논문접수: 2022년 6월 1일

논문심사: 2022년 6월 1일

게재확정: 2022년 6월 21일